

# 丁·鄭·孫, 지방선거·전대 두고 복잡한 셈법

〈세균〉 〈동영〉 〈학규〉

## 민주, 공천이어 차기 당권싸고 마찰 불가피 丁-孫 연대 관망속 비주류 공세 거세질 듯

민주당 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무소속 정동영 의원 간 역할 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조만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손 전 대표도 지난 21일 광주 방문을 계기로 정치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는 등 머지않은 시점에 민주당 '빅3'가 당내에서 경쟁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역할 관계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공천과 차기 당권경쟁 구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현재로서는 친노·386이 떠받치고 있는 정 대표와 일부 비주류 측의 지원을 받는 당 밖의 정 의원이 대척점에서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재보선 이후 춘천 침거에 들어간 손 전 대표와 정 대표 간 는

스한 협력관계가 형성된 모양새다.

당내 비주류의 잇단 공세에 처한 정 대표로서는 이를 견제하면서 당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손 전 대표를 우군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정 대표는 최근 송영길 최고위원을 추천으로 보내 손 전 대표에게 "지방선거에서 선대위원장 등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틈틈이 전화를 걸어 당운영과 관련, 자문을 구하는 등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손 전 대표 입장에서도 지방선거 공천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정 대표의 도움이 필요한 형편이다.

손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기전대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이면서 6월 지방선거는 정 대표를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복당이 임박한 정동영 의원은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며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있지만 당내



정세균 대표



정동영 의원



손학규 전 대표

복귀하면 비주류의 한 축을 형성하며 정 대표 체제와 맞설 것이 자명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탈당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당내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공천 등을 놓고 주류 측과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때문에 추미에 천정배 의원 등 주요 비주류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비주류 연합군'을 구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맞서 정 대표는 시민공천 배심원제 등 개혁공천 카드를 내세워 정면 돌파한다는 전략이나 비주류의 반발기류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빅3의 경쟁은 지방선거 공천을 거쳐 7월 전당대회에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직접 당권 경쟁에 뛰어든 대리인을 내세우든, 전대 결과가 차기 대권 고지를

향한 이들의 당내 주도권 다툼의 향배를 가능하게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동영 의원이 당권을 도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손 전 대표가 직접 아니면 대리인을 내세울 경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이후 3년 만에 또 한번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지방선거 핫코너

#### 주승용 의원 출마기념회 성료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주승용 민주당 국회의원(여수)의 저서 '아름다운 남도 아름다운 사람들' 출마기념회가 지난 23일 오후 순천팔마체육관에서 1만5천여 명의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출마기념회에는 정동영 국회의원과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김효석·강봉균·강창일·우은근·김부영·김재균·문화진·서종표·이용섭·이종걸·조배숙·이윤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정계·재계·학계인사 등이 참석했다.

#### 민영삼씨 목포시장 출마 선언

민영삼(50)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22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5년간 풍부한 행정 경험을 다량한 중앙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목포발전에 헌신하고,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열정을 바쳐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민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 부대변인, 서울시 의원, 민주당 당 대표 언론특보, 고건 전 국무총리 공보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목포희망포럼' 고문을 맡고 있다.

#### 김재원 보좌관 출마기념회 성황

영암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김재원(53)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책 특별보좌관은 지난 23일 오후 영암군민회관에서 지역민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사적인 '김재원의 희망 만들기' 출마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마기념회에는 민주당 유선호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 등이 참석했으며, 정세균 대표와 박준영 지사가 영상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 나병기 도의원 함평군수 출마

나병기 전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22일 함평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군의회와 도의원 등 8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잘 사는 함평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 의원과 함께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한 김성호 전남도 의원은 민주당 절차를 통해 군민들의 지지가 많은 쪽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이상선기자 sslee@·함평=황운학 기자 hwang@

## '뉴 민주당 플랜' 오늘 발표 관심

### 김효석 "국민적 요구 부응 변화 신호탄 될 것"

김효석 민주당 의원(담양·곡성·구례)이 정책연구위원장과 뉴민주당 비전위원장을 맡아 지난 2008년 8월부터 무려 1년 6개월 동안 준비했던 '뉴 민주당 플랜, 새로운 정책'이 25일부터 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 분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교육·노동·환경·안보 등 7개 분야별 정책을 일주일 단위로 차례로 제시한다.

매주 정책 발표에 앞서 현장에서 정책의 개요를 설명하고 의견을 최종 수렴하는 '현장 방문'도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해 그동안 각 분야별 종사자와 전문

가 간담회를 가진 것은 물론 해당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회를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7개 분야 정책 발표가 마무리되면 민주당은 뉴 민주당 선언과 각 분야별 정책을 담은 뉴 민주당 플랜을 발표하며 이후 전국 순회 설명회에 나선다.

김 의원은 "국민은 민주당에 달라지기를, 혁신을 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뉴 민주당 플랜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한나라 조기 전대론 다시 '꿈틀'

### 친박 "지방선거 대비 박근혜가 당권 맡아야"

### 광주 방문 정몽준 "현 시점에서 적정하지 의문"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조기 전당대론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어 주목된다.

조기전대론은 친박(친박근혜)계 몇몇 의원들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영남권의 한 친박계 의원은 최근 "박 전 대표가 예전과 달리 조기 전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박 전 대표가 당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난마처럼 얽힌 세종시 문제도 조기전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물론 24일 현재까지 박근혜 전 대표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다 친박 주류 측도 조기전대론을 전면 일축하고 있어 내부에서 큰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진형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항간에 친박 측에서 조기 전대 검토 운운한다는 말이 있지만, 근거가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부인하고 "박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말을 한 적도, 논의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기당권 도전설로 주제가 옮겨가면 세종시 문제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아예 이를 이슈화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중대한 국면에서 더 이상 얼골 없는 친박 인사의 말이 확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몽준 대표도 23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 논란과 관련, "당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기전대를 할 수 있으나 나라와 당원밖에 풀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현 시점에서 조기전대가 적정하지는 의문"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친이계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기전대를 하는 것은 당 분열을 가속화하고 세종시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적 여건으로 볼 때 지금으로선 조기전대가 동력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세종시와 관련된 계파 간 갈등이 끝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조기전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시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1위 한빛!**

**7월 9일 9시** **공무원 2월 1일 시작반** **사대생 시험패턴 변화바람**

**최고의 교육정책** **합격특강** **9월 문제풀이** **소방직**

**마감유의**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234-0234